소년단

1955.10

소년 시기의 김일성 원수의 동상

김일성 원수의 생가

—국립 중앙 해방 투쟁 박물관 칠골 분관에서—

평양에서 만경대로 가는 길로 10여리 가노라면 평안 남도 대동군 하리라는 마을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께서는 바로 이 하리 칠골에서 탄생하시였다.

아직도 원수님이 나신 생가는 옛 그대로 거두어져 있다.

원수님은 바로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그 다음 다음해에 이 집에서 탄생하셨다.

이 생가와 함께 두채의 아담한 건물이 서 있는데 이 두채의 흰 건물이 국립 중앙 해방 투쟁 박물관 칠골 분관이다.

날마다 많은 인민들과 소년단원들이 이 생가를 관람하려 찾아 오고 있다.

생가 정원에 들어서면 여러가지 꽃들과 나무들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고 정원 입구에는 소년 시기의 김 일성 원수 동상이 세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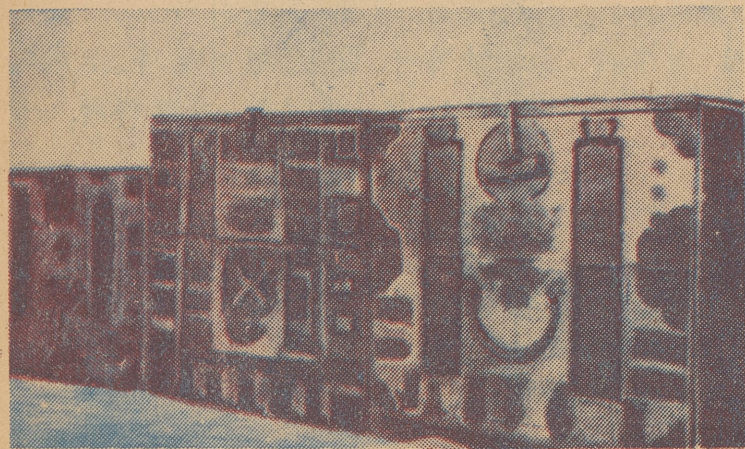
오른 손에는 학생모를 쥐고, 왼

손에 책보를 들고, 왼 발로 한발자국 내짚고 빛나는 눈'동자로 멀리 앞날을 내다 보시는 어린 시절의 김 일성 원수의 동상!

항일 빨찌산 투쟁의 전설적 영웅이시며 조선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 일성 원수는 1912년 4월 15일 이 곳에서 탄생하시였다.

동상 앞면에 새겨진 이글을 읽으며 나는 김 일성 원수의 생가로 발'길을 돌렸다.

김 일성 원수의 생가는 짚으로 지붕을 해올린 소박한 집이다. 부엌 한간, 노전 넉장을 깐 두간방과 사이벽을 두고 또 한간 방이 있다.

문은 보통 살창문이고 방 안에는 붉은 칠을 한 의롱 셋이 놓여 있고, 부엌에는 물독이며 식기들이 그대로 있다.

그리고 봇당에는 집 지은지 오래된 것을 말해 주는 년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김 일성 원수는 이 집에서 탄생하시여 석달을 지내시였다. 그리고는 만경대에서 일곱살까지 보내시고 그 다음 아버지를 따라 중국 동북으로 건너 가셨던 것이다.

생가를 관람하는 나의 눈 앞에는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15여해나 일제와 싸워 이기신 원수님의 모습이 선히 떠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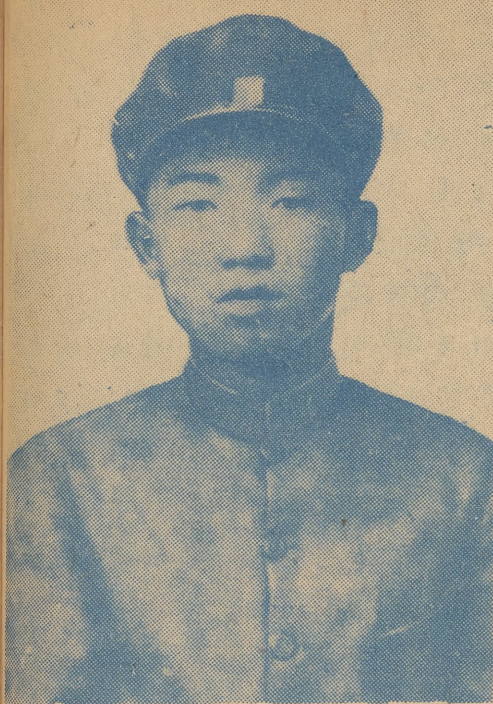
생가를 돌아 나오는 나의 눈은 문득 문돌도귀에 가 멎었다.

일제 경찰은 이 집을 눈알을 부라리며 얼마나 모질게 드나들며 뒤졌겠는가.

놈들은 김 일성 원수의 부친 김 형직 선생을 붙잡으려고 했으며 김 형직 선생과 함께 일제와 싸우신 원수님의 외숙부 강 진석 선생을 붙잡으려고 날뛰였던 것이다.

생가 안에 있는 의롱

바로 이 집도 조선 인민이 일제에게 시달린 것처럼 그렇게 일제놈들의 시달림을 받았던 것이다.

조선 인민이 8•15해방을 맞이한 그날부터 이집도 영광으로 빛나고 있다.

16세 때의 김 일성 원수

나는 생가에서 나와 사진 전람실로 갔다.

이 사진 전람실에서 우리들은 김 일성 원수께서 걸어 오신 영광스러운 길을 다시 한번 눈 앞에 그려 보게 된다.

여기에는 김 일성 원수의 생가가 있는 칠골 전경, 만경대 전경 사진, 그리고 원수님의 조부, 조모, 부친, 모친, 숙부의 초상이 모시여 있다.

그 다음 14세 때의 김 일성 원수의 사진, 그림 "동북으로 건너 가시는 김 일성 원수" 16세 때의 김 일성 원수 사진, 그림 "공청 회의를 지도하시는 김일성 원수" 그리고 항일 빨찌산 투쟁 시기의 사진들— 이 모든 사진들과 그림들은 원수님의 빛나는 투쟁의 길을 그대로 말해 주고 있다.

비록 어린 소년이였으나 조국의 앞날을 내다 보시며 조국 해방의 큰 뜻을 품으신 원수님은 열 네살 때에 중국 동북으로 건너 갔었다.

그때 벌써 원수님의 가슴에는 꺼질 줄 모르는 애국심이 불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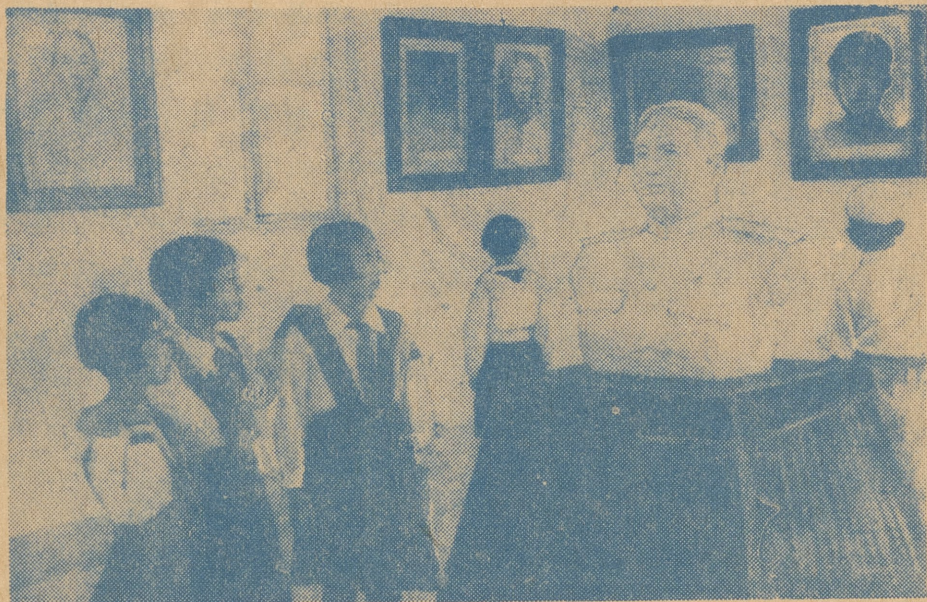
그림 "동북으로 건너 가시는 김 일성 원수" 앞에서 나는 원수님이 열네살 때 중국 동북으로 건너 가시면서 일제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조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한 말씀을 다시 한번 외여 보게 되였다.

중국 동북에서 민족 해방 투쟁을 계속하고 계신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원수님은 잠시도 사랑하는 조국을 잊지 않으셨다.

《나는 중국 소학교를 졸업하던 날로 아버지에게 조선으로 가겠다고 말했소. 그랬더니 아버지는 곧 승낙해 주셨소. 조선 사람 속에 가서 그들의 생활을 잘 보고 알아야 한다고 했소. 같이 고생하고 같이 왜놈의 학정도 받아 보아야 한다고 했소. 참 옳

은 말이였소》 (한 설야 작 "아동 혁명단" 에서).

《그래 조선 가서 고향 소학교에 들었지요. 열네살에 졸업했는데 그때 막 아버지 소식을 들었소. 왜놈에게 체포됐다가 탈주하기는 했으나 도중에서 추위로 병이 나서 거의 사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왔어요. 내 어린 생각에도 병든 아버지를 절대로 다시 왜놈에게 걸리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했소. 그래서 나는 그때 아버지가 숨어 있던 무송으로 갔소》 (한 설야 작 "아동 혁명단" 에서).

바로 그 그림은 원수님이 고향에 나오시여 여기 창덕 소학교를 다니시고 열 네살 때 다시 동북으로 들어가실 때의 모습인 것이다.

원수님이 조선에 나와 다니셨다는 창덕 소학교 (현재 창덕 인민 학교)는 여기 생가 뒤 언덕에 우뚝 솟아 있다.

지난 전쟁 시기에 원쑤놈들은 이 학교를 모조리 짓부셔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학교는 지금 더욱 아름답고 훌륭하게 새로 일어섰다.

이 학교 뒤'언덕에 오르면 멀리 아름다운 모란봉과 평양 거리가 바라다 보인다.

바로 이곳 원수님 생가 마을은 원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신 만경대와 함께 우리 인민이 자랑하는 영광스러운 고장인 것이다.

(리 동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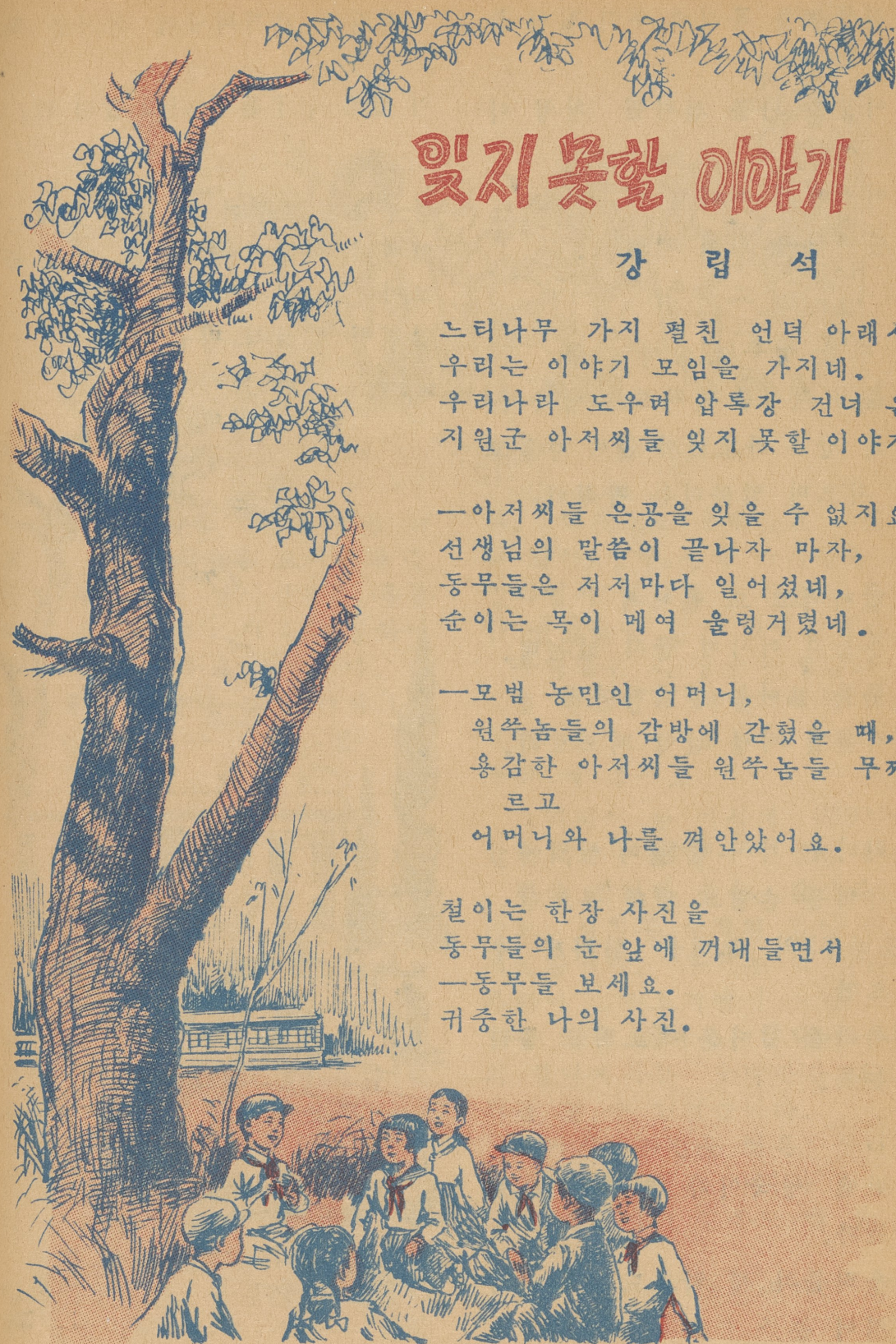
잊지 못할 이야기

강 립 석

느티나무 가지 펼친 언덕 아래서
우리는 이야기 모임을 가지네.
우리나라 도우려 압록강 건너 온
지원군 아저씨들 잊지 못할 이야기

—아저씨들 은공을 잊을 수 없지요
선생님의 말씀이 끝나자 마자,
동무들은 저저마다 일어섰네,
순이는 목이 메여 울렁거렸네.

—모범 농민인 어머니,
원쑤놈들의 감방에 갇혔을 때,
용감한 아저씨들 원쑤놈들 무찌르고
어머니와 나를 껴안았어요.

철이는 한장 사진을
동무들의 눈 앞에 꺼내들면서
—동무들 보세요.
귀중한 나의 사진.

원쑤놈들 폭격에 우리 집이 불
 탈 때,
이분은 나를 건져낸 왕청 아
 저씨.
아저씨가 떠나갈 때, 나는
아저씨와 함께 찍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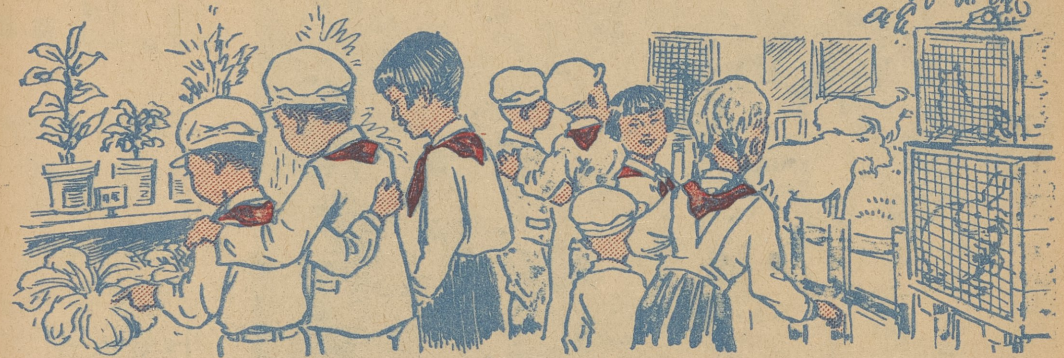
그 다음 꽃무늬 곱게 그린
한문자 편지를 펼쳐드는 영숙이,
선물 받은 하모니까 높이 쳐들고
손 저으며 말하려는 광식이,

…일어서고 또 일어서
동무들의 이야기 끝이 없는데.
모두들 신나는 얼굴마다엔
잊지못할 지난 날이 떠오르네.

느티나무 가지 펼친 이 언덕에서
아저씨들 손잡고 함께 부르던
《동방홍》의 노래를 힘차게 부
 르면
아저씨들 정다운 목소리도 들리
 는듯.

이번엔 영숙이가 일어서며 말
 했다.
—우리들의 새 학교도 훌륭하게
 지어 준
지원군 아저씨들께 편지를 쓰
 자…
이 말은 누구든지 하고 싶던 말.

동무들은 모두가 손'벽을 쳤네.
언제나 어데서나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아저씨들 이름 부르며
영원한 친선의 마음 울리며…

이것은 우리의 학습을 도왔다

—학교 정원에서의 한해—

평남도 룡강군 애원 인민 학교 대 소년단원들은 교재원과 실습지, 동물원과 양어장들을 훌륭하게 운영하면서 이것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래에 그들의 경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

훌륭한 자연 교실

우리 학교 실습지는 식물원, 교재원 등과 함께 우리들의 훌륭한 배움터로 되고 있답니다.

교문을 들어서면 운동장 오른편에 귤, 감, 빠나나 등 갖가지 과수류를 비롯하여 교목들과 관목들이 줄지어선 식물원이 있고 그 옆에 약초 식물과 은화 식물들이 싱싱하게 자라나는 교재원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실습지는 약 300평가량됩니다. 올봄에 우리들은 이 실습지에 벼, 조, 수수를 비롯한 20여종의 곡식들을 심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들은 곡식들의 발아, 성장, 성숙 기간들을 관찰하면서 일람표도 만들고 훌륭한 실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신 명순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자연과에서 배운 옥수수의 인공 수분 실험도 훌륭히 해 냈지요.

그리하여 한 이삭에 846알이 달린 옥수수를 딸 수 있었습니다.

더욱 재미난 것은 감자와 도마도, 참외와 수박의 접아 실험이였습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하여 감자포기에서 자란 도마도를 따게 되였고 참외와 수박의 접아에서는 수박만한 큰 참외를 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얻은 우리는 앞으로 과수원의 사과와 배, 살구와 복숭아의 접목도 해 볼 예정입니다.

얼마 전부터 온실에서는 감자와 고구마의 2모작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 바람이 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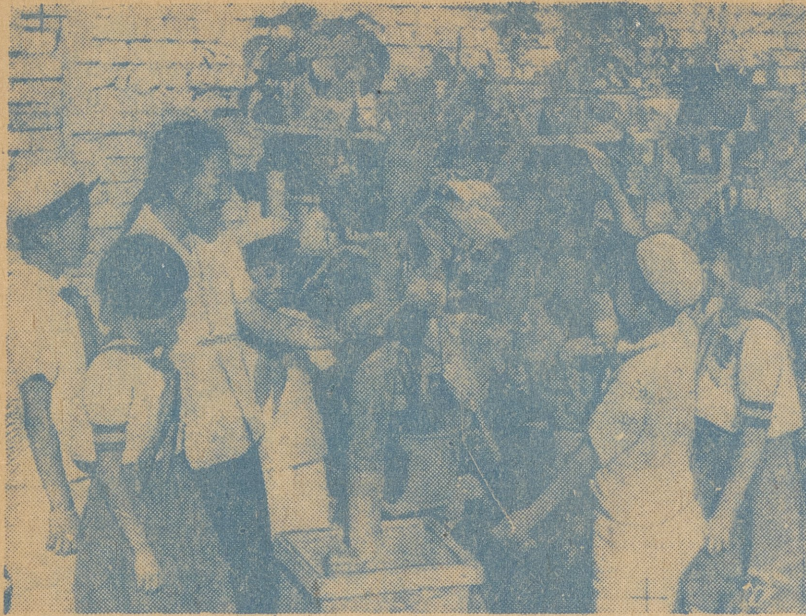
전에 우리는 여기서 두번째의 훌륭한 감자와 고구마를 캐낼 것이며 계속하여 온실에서는 겨울동안 종자 배추와 무, 콩과 완두의 재배 실험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각 크루쇼크에서는 로력의 열매를 자랑하는 "가을 전람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전람회에는 강 정숙 동무가 열심히 가꾸어 거둔 846알이 달린 옥수수를 비롯하여 김 영실 동무가 거둔 3,000알이 달린 수수, 무게 2kg나 되는 고구마 등 훌륭한 열매들과 함께 그를 가꾼 동무들의 우수한 경험이 소개될 것입니다.

앞으로 전람회에 나오는 우량 종자들은 다음해의 종곡으로 마련될것입니다.

농작물 크루쇼크원 리 대호

식물 재배 크루쇼크원 로 문근

우리들의 동물원

우리 학교 동물원에는 소, 돼지, 염소를 비롯한 가축들과 닭, 오리, 거위 등 많은 가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사냥해 온 노루, 여우, 너구리들이며 꿩을 비롯한 수많은 조류들과 여러가지 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먼 동이 터오면 벌써 동물원 우리에선 잠에서 깨여난 동물들이 어린 주인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인제는 야생동물 노루, 여우, 너구리들까지도 우리와 퍽 낯익어졌지요.

우리들은 이 동물원에서 교재에 나오는 동물들의 생활을 직접 관찰하며 훌륭히 배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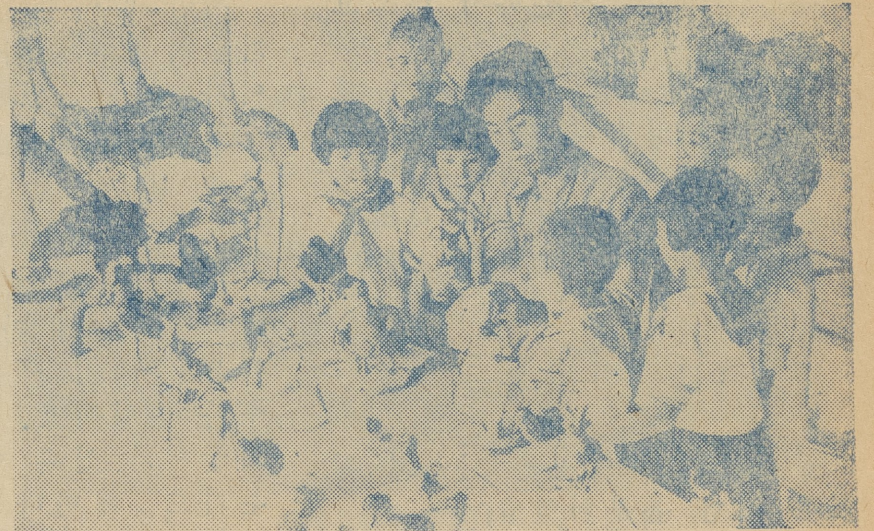
자연과에 나오는 "노루의 습성"을 배울때 우리들은 "노루의 집"앞에 가서 노루는 앞다리가 짧고 겁이 많으며 그가 좋아하는 식물은 진이 많은 풀들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똑똑히 리해하게 되였습니다.

더우기 뱀의 동면과 단식 실험은 우리들의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작년11월15일 뱀의 동면을 관찰하기 위하여 유리 통 속에 넣어 둔 달구렝이와 살모사는 거의 1년이 되는 오늘까지 아무 것도 먹지 않고 계속 살고 있답니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동면하는 동물들이 동면 기간은 완전히 운동을 멈춘다는 것을 알게 되였고 특히 뱀은 동면에서 깨여난 후에도 운동만 시키지 않으면 아무 것도 먹지 않고도 1년 남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이 밖에 우리들은 많은 동물들의 생활과 습성을 자세히 관찰하며 동물들의 생활 일기를 기록해 나갑니다.

토끼의 생활 일기에는 그의 번식과 성장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여 있지요.

토끼는 새끼를 가져서 꼭 30일만에 낳으며 새끼를 낳은 엄지 토끼는 3일이 지나자 또 다시 새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여난 새끼 토끼는 1주일이 지나서 털이 돋기 시작하고 12일이면 처음으로 눈을 뜨며 17—18일이면 굴에서 나와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관찰과 실험은 우리들이 배운 지식을 더욱 넓고 깊게 다질 수 있게 하지요.

지금 우리들은 동물들의 겨울 준비와 함께 "가을 전람회"에 내놓을 동물들의 생활 일기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야생 동물 크루쇼크에서 정리한 자료를 보면 지난 한해 동안 여우 한마리가 3,560마리의 쥐를 먹었습니다. 만일 쥐 한마리가 1년에 3되의 낟알을 먹는다면 여우는 지난해 106말 8되나 되는 낟알을 절약할 수 있게 했

다는 재미나는 계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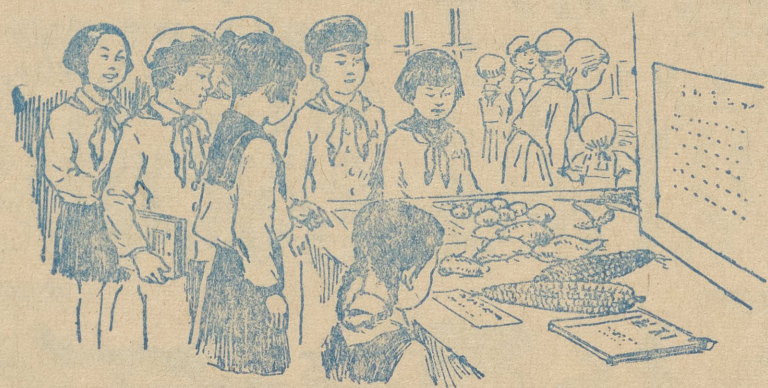
가축 동물 크루쇼크에서도 토끼의 생활 일기와 함께 돼지 한 마리로부터 13마리로 늘어난 자세한 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가축 동물 크루쇼크원 **홍 종련**
야생 동물 크루쇼크원 **한 상지**

어린 양어가들

우리들이 양어장을 만들게 된 것은 지난 봄부터였습니다.

처음에 우리들은 강 치권 선생님과 함께 양어장에 여러가지 고기들을 잡아 넣는 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내'물에 흔히 있는 붕어, 버둘치, 미끄라지, 수수붕어들은 쉽게 얻을 수 있었으나 잉어와 뱀장어, 가물치들을 얻기에는 많은 로력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어류들을 더 빨리 길러내기 위하여 고기들이 좋아하는 쌀겨를 모이로 많이 갖다 주었고 때로는 누에의 번데기와 작은 감자들을 삶아다 넣어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양어장에는 붕어, 잉어, 가물치를 비롯하여 16종의 담수어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양어장에서 물'가에 나와 노는 버들치, 수수붕어, 미끄라지들을 봅니다. 이것들은 물이 얕은 곳에서 살며 잉어와 뱀장어, 가물치들은 물이 깊은 곳에서 사는 것들임을 알수가 있였지요. 그리고 붕어와 가물치가 언제 어떻게 알을 낳는가도 재미나게 살펴 보았습니다.

붕어는 봄과 여름 두차례에 걸쳐서 물 속 풀'잎에 알을 낳고 가물치는 물'가에 나와 한알씩 낳은 다음 거기에 수'놈들이 와서 정액을 뿌리는 것이였습니다.

붕어의 알은 봄에는 20일, 여름에는 12—15일이 걸려 까지군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더 훌륭한 양어장을 꾸미고 어류들과 개구리의 발육 등 많은 재미나는 관찰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양어 크루쇼크원 **김 길자**

우리 학교 연예대의 자랑

함남 북청 제1 인민 학교 대
위원장 주 성 입

우리 학교 대에는 무용, 연극, 창가, 시랑송, 동화 구연—다섯가지 부문으로 된 연예대가 조직되여 있습니다.

이 연예대에는 2학년 어린 동무들로부터 5학년에 이르기까지의 143명의 동무들이 참가하고 있지요.

대 위원회에서는 학교에서 괴마 배우로 이름난 대 위원 렴 성국 동무를 대 연예대 책임자로 임명하였답니다.

렴 성국 동무는 매달 전체 연예대원들의 의견을 모아 그달에 진행할 연예대 사업 계획을 대 위원회에 내놓지요.

대 위원회에서 의논된 계획은 곧 연예대 지도원선생님의 지도 밑에 재미 있게 진행된답니다.

지금 우리 학교 대에서 제일 흥미있게 그리고 널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가무극 (노래와 춤으로 진행하는 연극) 과 아동극입니다.

우리는 이 아동극의 작품들을 《소년 신문》 《소년단》 《아동문학》 등 신문과 잡지나 우리들의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교재 가운데서 골라내기도 하고 선생님의 지도 밑에 직접 우리들이 지어내기도 하지요.

지난번 영예롭게도 8·15해방 10주년 기념 전국예술축전에 나간 가무극 《행복한 별나라》도 지난날 소년 신문에 실린 《꿀벌과 말벌》을 읽고 우리 학교 소년단

지도원 황 일 선생님과 무용 지도원 리 숙자 선생님의 지도 밑에 우리들이 만든 것이랍니다.

우리는 아동극이나 가무극의 작품이 다 되면 약 1주일 동안 저마다 그 작품의 내용을 눈을 감고도 외울 수 있도록 읽고 익힙니다.

그런 다음에는 저마다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배역을 골라 맡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연예대 지도원 선생님의 지도 밑에 곧 련습에 들어간답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가 맡은 배역의 말과 행동을 실지 대로 해보며 노래와 춤을 외우는 동으로 약 2주일 동안 련습을 진행하지요.

이렇게 련습이 모두 끝나면 학교에서는 즐거운 연예 모임이 벌어집니다.

이리하여 정전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학교 연예대에서는 《거만한 흰 토끼》 《다시 찾은 피리》 《행복한 별나라》 등 일곱가지의 가무극과 《굴 캐는 동산》 《동무를 사랑하자》 《모험가》등 일곱가지의 아동극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우리 학교 대에서는 이러한 아동극과 가무극 또는 노래와 춤 시랑송, 동화 구연을 다만 연예대에서만 진행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대 연예대원들은 자기들이 배운 노래와 춤, 가무극, 연극들을 자기 분단 동무들에게 가르쳐 주기에 힘쓰고 있지요.

그중에도 특히 이번 《행복한 별 나라》에서 꼬마별로 나왔던 무용부원 박 영순 동무와 신 영순 동무들은 항상 분단 동무들에게 자기가 배운 무용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자기들이 지은 무용 《즐거운 하루》 《우리 반의 자랑》을 동무들에게 배워주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 학교대 어느 분단에서든지 대 연예대가 진행한 연극과 가무극들을 하지 못하는 분단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하여 휴식 시간이나 방과 후이면 운동장 이곳 저곳에서 즐거운 노래와 춤이 벌어지며 동화극이나 시랑송, 동화 구연 놀음이 흥겹게 벌어지지요.

우리 학교대에서 한학기에 한번씩 진행되는 《문화의 밤》과 때때로 진행하는 분단 대항 연예 경연 모임에서는 노래와 춤, 연극, 시랑송, 동화 구연 등으로 각분단이 저마다 지지 않으려고 서로 경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채로운 연예를 가지고 복구 건설에 힘쓰시는 로동자 아저씨들과 농촌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모시고 자주 위안 공연도 한답니다.

이번 8•15 해방 10주년 기념 전국 예술 축전에서 돌아온 후 《행복한 별나라》만 가지고도 벌써 네차례에 걸쳐 공장과 농촌을 찾아 나갔답니다.

우리 학교 연예대 사업은 우리들의 학습과 소년단 생활을 명랑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지요.

지금까지 진행한 연극과 가무극, 동화구연 가운데는 학습을 게을리 하며 학교의 규률을 지키지 않고 동무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 동무들을 고쳐주기 위한 내용도 많았습니다.

자기 재간만 믿고 동무들을 깔보며 뽐내던 거만한 흰 토끼가 승냥이한테 물릴번 하다가 동무들의 힘으로 구원을 받고 비로소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가무극 《거만한 흰 토끼》를 보았을 때 우리들은 누구나 거만한 흰 토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동화극 《토끼의 승리》를 보고 우리는 로력하지 않고 남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놈들은 반드시 망하며 비록 힘이 약하지만 한데 모아 싸우면 어떤 큰 힘 앞에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달았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번 우리 학교 연예대가 전국 예술 축전에까지 나갔다 돌아온 이 영예와 자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학습과 소년단 생활을 보다 명랑하고 활기있게 하기 위하여 연예대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무극을 련습한다

왕치거 아저씨

리 근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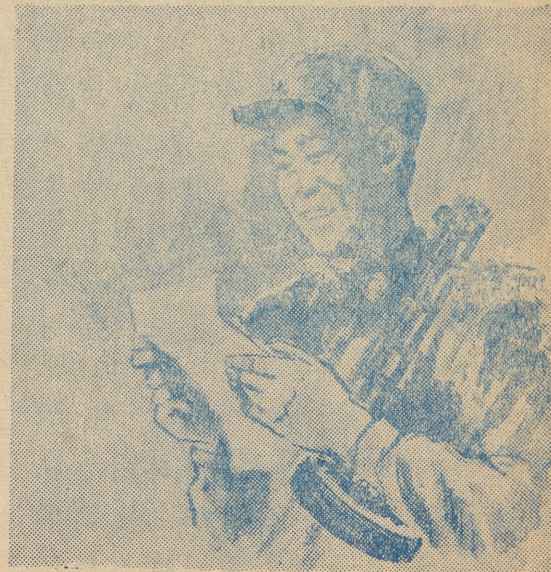
1953년 1월에 동부 전선과 중부 전선 사이에서 생긴 일입니다. 북쪽에서 뻗어 내려 온 산'줄기는 1키로 쯤 가다가 서쪽에로 굽었는데 굽은 데서 부터는 중국 인민 지원군들이 맡고, 이쪽은 인민 군대가 맡았습니다.

그래 서로 한 산'줄기에서 인민군과 지원군은 이웃집 같이 있어 가지고 다정하게 지내면서 미군놈들을 쳐부시군 했습니다. 인민 군대가 밤 중에 적을 습격할 때에는 지원군들이 있는 진지를 거쳐 나가기도 하고 지원군 진지를 지나서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는 지원군이 적 진지까지 인민군을 안내해 주었고 또 적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부상병이 있으면 업어서 인민군 진지까지 안내해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원군도 전투에 나갈 때나 돌아올 때에는 인민군 진지를 지나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 산에다 튼튼한 굴을 뚫고 만든 인민 군대의 진지에는 지원군들을 위하여 따로 만든 휴계실이 있는데 이 방에는 언제나 불을 따뜻하게 때여 두군 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적이 비행기로 폭격을 하거나 포 사격을 하여 지나가기가 위험하면 이 방에서 지원군들이 쉬기도 하며 부상 당한 지원군을 인민 군대가 치료해 주기도 했습니다.

추운 동해 바람에 함박눈이 흩날려 앞을 분간하기 힘든 정월 어느 날이였습니다. 김 만홍 부소대장은 아들에게서 온 편지를 배낭에서 꺼내여 속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왕치거 지원군 아저씨를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나를 살려 주었고 나를 몹시 사랑해 주시던 왕 치거 아저씨가 항상 보고 싶어요. 빨리 빨리 찾아 주세요》.

김 만홍 부소대장은 아들 영일에게서 벌써 이런 편지를 네번이나 받았는데 그때마다 영일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왕치거 아저씨를 찾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일이는 왕 치거 아저씨를 왜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지요. 왕 치거 지원군 아저씨는 다른 지원군 다섯명과 함께 영일이네 뒤'집에 있었는데 아저씨는 인민학교 2학년생인 영일이를 퍽 사랑해 주었습니다. 영일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노래도 배워주고 중국 말도 배워주었지요. 그런데 하루 낮에는 할머니와 어머니는 밭에 나가고 영일이 혼자 방에서 숙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달려든 적기는 마을에 소이탄을 퍼부었습니다. 영일이가 미처 밖으로 뛰여 나오지 못했는데 집은 왼통 불덩어리가 되다 싶이 하여 아무도 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왕 치거 아저씨가 용감하게 방으로 뛰여 들어가 영일이를 업고 나왔습니다. 왕 치거 아저씨가 아니였더라면 영일이는 꼭 죽었지요. 그 뒤 왕 치

거 아저씨네 부대는 적과 싸우러 영일이네 동네를 떠났는데 얼마 뒤에 왕 치거 아저씨 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 영일이는 왕 치거 아저씨의 부대를 아버지에게 알려 드리고 꼭 한번 만나 보시라고 했던 것입니다.

김 만홍 부 소대장은 아들의 편지를 받고 곧 왕 치거 아저씨에게 편지를 했더니 아저씨는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먼 후방 병원으로 갔다는 답장이 부대에서 왔을 뿐이였습니다.

그래 김 만홍 부 소대장은 지원군만 만나면 왕 치거 아저씨를 아느냐고 물어도 보았습니다. 이날도 김 만홍 부 소대장은 영일의 편지를 다시 읽고는 한번도 보지 못한 왕 치거 아저씨를 혼자 그려 보며 의로운 지원군들에 대한 고마운 생각에 잠기였습니다.

이날 밤에 지원군들은 적의 진지를 습격하기로 되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김 만홍 부 소대장은 전사들과 함께 지원군들을 위하여 만든 휴계실에 불을 때여 놓고 또 더운 물도 끓여 놓았습니다.

지원군의 습격을 받은 적 진지의 하늘은 빨갛게 불타며 총소리와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총'소리는 차츰 멎어 갔습니다.

《지원군들이 꼭 이리로 지나갔으면 좋겠다》. 김 만홍 부소대장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려니 과연 산 아래 쪽에서 지원군들의 말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부 소대장은 전사들과 함께 《만세》를 부르며 교통호를 따라 마중 나갔습니다.

맨 앞에서 한 지원군이 부상병을 업고 오면서 헐떡거리는 것을 보자 김 만홍 부소대장은 《내가 대신 업지요. 나와 교대합시다》. 이렇게 떼질하듯 하여 부상병을 업었습니다. 부상병은 정신을 잃었는지 신음 소리만 내며 몸을 잘 가누지 못했습니다.

김 만홍 부소대장은 지원군들을 데리고 휴계실로 들어 갔습니다.

방 안은 미군 포로 여덟명까지 들어 몹시 비좁았으나, 더운 훈김에 몸을 따뜻이 녹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만홍 부소대장이 업고 온 지원군 부상병은 적탄이 허벅다리를 뚫고 나가 피를 많이 흘려서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부상병은 신음 소리를 내면서도 가끔 《내가 열 놈은 더 죽였어》.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만홍 부소대장은 이 부상병에게 더운 물을 먹인 다음 물그럼이 보고 있으려니 왕 치거 지원군의 생각이 불쑥 떠 올랐습니다.

(내 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왕 치거!) 이때 위생 지도원이 부상병의 상처에 약을 바르고 《부상병에게 피를 넣어 주어야겠습니다》 하고 방 안을 둘러 보았습니다.

지원군들은 자기의 피를 넣어 달라고 서루 앞을 다투며 나섰습니다. 이때 김 만홍 부소대장도 팔을 걷어 올리며 자기의 피를 넣어 달라고 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침 김 만홍 부소대장의 피만이 부상병의 피와 같았습니다.

적의 폭탄과 포 사격으로 하여 방 안까지 련달아 흔들렸습니다.

김 만홍 부소대장의 팔에서 뺀 피를 위생 지도원이 부상병에게 주사로 넣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김 만홍 부소대장은 아들 영일에게 편지 할 생각을 했습니다.

《영일아, 지원군 부상병에게 아버지의 피를 넣어 주어 기운을 차리게 하였다.

나는 지금 이 부상병을 꼭 왕 치거 아저씨라 생각하고 피를 뽑아 주었다.

너도 모든 지원군 아저씨를 왕 치거 아저씨로 알고 존경하며 감사하여라! 지원군 아저씨들은 모두 왕 치거 아저씨처럼 조선 사람들을 도와 목숨바쳐 싸워 주고 있지 않니!》.

이튿날 김 만홍 부소대장은 정말 이렇게 영일이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영일이 한테서 이내 회답이 왔는데 편지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나도 지원군 아저씨들을 왕 치거 아저씨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왕 치거 아저씨가 있는 곳을 꼭 알아야하겠어요. 꼭 찾아 주세요》.

영일의 편지를 읽고난 부소대장은 《영일이가 여간한 떼쟁이가 아닌데…》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영일이 한테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뜻밖에 한 지원군 아저씨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인제 왕 치거 아저씨가 있는 곳을 알아 냈어요. 그런데 아버지! 그 지원군 아저씨는 아버지를 조선의 《왕치거》라고 불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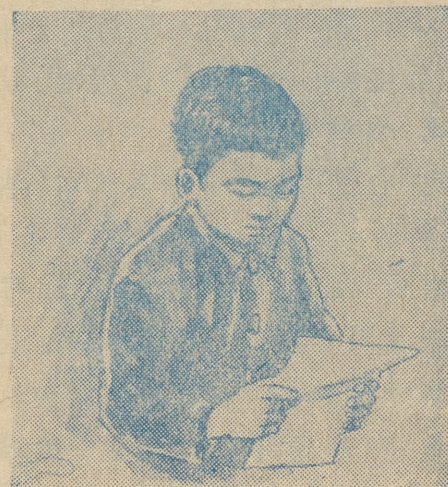
이것은 어찌된 일일가요?

지원군 부상병에게 피를 넣어준 며칠 뒤 김 만홍 부 소대장은 사단 지휘부로 가는 길에 전에 피를 넣어준 지원군을 만나보려고 지원군 병원에 들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일이가 왕 치거 아저씨를 찾아 달라는 이야기도 했었지요. 그랬더니 지원군은 몹시 기뻐하면서 《내가 왕 치거를 잘 알아요. 곧 영일이에게 그의 주소를 알려 드리지요》 하고 말하고 나서 《동무는 나에게 있어서 조선의《왕 치거》입니다》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받은 김 만홍 부소대장은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그 지원군 부상병이 영일이에게 편지를 써 보낸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영일인 참 반갑겠다. 또 한분의 지원군 아저씨와 사귀게 되여서》.

김 만홍 부소대장은 몹시 기뻐하고 있을 영일이의 얼굴을 그려보며 이렇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황해남도 재령군 제4 중학교 (인민반)
제5학년 최 신 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였습니다.

나는 동무들과 함께 학교 뒤'산에 올랐습니다.

늘 보아 오던 고향 마을이지만 오늘 따라 협동 조합 우리 마을은 유달리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 마을 협동 조합 꽃피여 가요.
새로 새로 새 자랑만 늘어가요.
방축 쌓고 새논 풀고 탁아소 내고,
마을에는 날마다 웃음꽃 펴요.
………
………

방금 학교에서 배운 노래는 우리 고향을 노래한 것만 같았습니다.

바라보면 언덕 아래에 펼쳐진 마을 옆에는 우리 마을의 새 모습을 자랑하는 수로가 길게 뻗어 있지요.

그 량옆의 논벌에서는 누렇게 익은 벼를 베는 협동 조합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하는 모습이 눈에 띄웁니다.

한편 벼'단을 실은 달구지들이 군데군데에 보이고 장수산 밑으로는 짐 실은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달려 갑니다.

《참 아름답지! 그림 같구나》.

나는 동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이 벌은 조나 옥수수 밖에 심지 못하는 밭들이였습니다. 그러나 올봄에 협동 조합 우리 마을에서는 60정보의 밭을 논으로 풀어 기름진 땅으로 만들었지요.

작년 가을 어느 날 협동 조합에서 돌아 오신 어머니는《얘야 마을 앞벌에는 래년부터 벼를 심게 된단다》하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때 나는《물도 없는 밭에다 어떻게 모를 하나요》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우리 조합원들이 힘을 합해 일하면 재령강 물도 끌어 올 수 있단다》하고 웃으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이 꿈 같이 생각되였었지요.

그러나 나는 협동 조합원들은 못 해내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정말 공사는 눈부시게 진행되였지요.

처음으로 이 벌에서 중국 인민들이 보내준 양수기로 물을 끌어 넘길 때 마을 농민들이 야! 하고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 앞에 선 합니다.

이때 우리들도 모임에서 부모들의 일'손을 돕기로 의논하고 일터에 나가 아기도 보아 주고 쉬는 시간에는 노래와 춤으로 조합원들을 위안해 드렸습니다.

협동 조합 아버지 어머니들은 우리들의 노래와 춤을 여간 재미있게 구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우리들은 12톤의 퇴비를 만들 수 있는 풀을 베여 협동 조합에 가져 갔고 개구리와 참새를 잡아다 조합의 소들에게 먹였답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분단에서는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 아저씨를 모시고 모임도 가졌습니다.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 아저씨는 우리들에게 며칠 후에 또다시 시작될 새 관개 공사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면서

《래년 가을에 우리 협동 조합에서는 금년보다 훨씬 더 많은 낟알을 거두게 된단다》하고 자랑했습니다.

금년 안으로 우리 마을에 새로 구락부도 짓고 공원도 훌륭히 꾸며 놓겠다는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들은 손'벽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마을에서도 뜨락또르가 달리게 되나요》하고 누가 물었을 때 관리 위원장 아저씨는《달리게 되구 말구. 래년 봄엔 너희들도 뜨락또르 구경하게 될거야》하고 웃으셨습니다.

《난 크면 뜨락또르 운전수가 될래요》. 관리 위원장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원필 동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을 했군, 앞날의 우리 마을에는 많은 새 농업 일'군들이 있어야 하지요》하고 관리 위원장 아저씨는 우리들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나는 보다 아름다워질 고향을 눈 앞에 그리며《나도 열심히 배워서 장차 훌륭한 농업 일'군이 될테다》이렇게 마음 속으로 웨쳤습니다.

바라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나의 고향!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협동 조합 우리 마을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나는 소년단원 새 일'
　군이 되여서
아름다운 우리 마을 빛내일
　래요.

미추린 선생 이야기

쏘련의 위대한 생물 학자 미추린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855년 10월 27일에 로씨야의 랴잔스크 주에서 탄생하였습니다.

네살 때에 어머니를 여인 미추린은 어린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집 과수원에서 나날을 보내며 아버지의 일을 돕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래서 미츄린은 어려서부터 어린 원예가가 될 수 있었지요.

맨 처음 그는 아버지에게서 전지 (쓸모 없는 가지를 베는 일)와 접목하는 일을 배웠답니다.

하루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사과 나무의 가지와 잎을 가위로 짤라 주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때

《사과 나무에 더 큰 사과알이 많이 맺히라고 그런단다》 하고 대답하였으나 어린 미츄린에게 있어서 이 대답 만으로는 자기가 알고 싶어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며칠 동안 이 의문을 풀기 위하여 생각에 잠기군 하였지요.

며칠 후였답니다. 그는 아버지가 베 낸 줄기에서 진이 흘러 나오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옳지 이 진으로 가지와 잎이 자라고 꽃도 피며 열매도 맺히는구나》 하고 큰 발견이나 한듯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니 전지를 하면 꽃과 열매에 더 많은 양분이 쏠리여 큰 열매가 맺히게 되겠구나》.

그는 이리하여 자기가 품고 있던 의문을 혼자서 풀어 내였습니다.

과수의 열매는 사람의 힘으로 더많이 그리고 더 좋고 더 큰 것을 맺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린 미츄린은 알아 내게 된 것입니다.

미츄린은 어린 원예가였을 뿐만 아니라 어린 공작가이기도 하였지요.

그는 어려서 부터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을 몹시 만들어내고 싶어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일곱살 나던 해 겨울에는 약 30분 가량 갈 수 있는 시계를 만들어 내였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데에 그는 치륜 하나, 작은 쇠사슬 하나, 크기가 같지 않은 쇠'덩이 두개, 그리고 대패로 잘 민 나무판 두개를 리용했을 뿐이랍니다.

아버지는 어린 미츄린의 이 재롱스러운 지혜를 키워 주기 위하여 변변치 못한 살림을 참아 가면서 그를 학교에 보냈지요. 그리하여 1872년에 그는 소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랴잔스크에 있는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짜리의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보다 몇배나 더 되는 지식을 집에서 혼자 자습으로 배워 나가군 하였지요.

그런데 그는 중학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바로 어느 일요일이였습니다.

미츄린은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길 맞은 편으로 교장 선생이 지나 갔지요.

그러나 미츄린은 교장 선생을 보지 못하여 인사를 하지 못했는데 그는 이것 때문에 중학교에서 쫓겨 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부터 그는 더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의 힘으로 집에서 혼자 열심히 배워 나가며 원예 사업을 위하여 온갖 지혜를 바쳤습니다.

미츄린은 로씨야 남쪽 지방에서 자라는 맛 좋은 과실 나무들을 추운 로씨야 중부와 북쪽에

실습지의 가을

우리들이 여름내 정성 들여 가꾼 실습지에서는 지금 가을이 시작되였습니다.

탐스러운 이삭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 주지요.

로 숙자 동무가 가꾼 옥수수에서는 한대에서 다섯 이삭 씩이나 따게 되였고 내가 가꾼 콩밭에서는 한가지에서 447꼬투리의 콩을 따게 되였답니다.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은 우리들이 여름내 열심히 가꾸어 주었기 때문이지요.

서도 견디여 내게 하고 그곳에서도 맛좋은 과실들을 딸 수 있게 할 것을 항상 꿈꿨습니다.

이것은 비단 미츄린만이 아니라 많은 로씨야 생물 학자들이 원하고 있었고 또 실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로씨야 학자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학자들까지도 이와 같은 실험에서 성공해 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츄린은 갖은 고생을 하면서 품을 팔아 번 돈으로 과수원을 가꾸며 여러가지로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짜리 정부는 그의 실험을 전혀 도와 주지 않았고 오히려 짜리 관리들은 그의 실험을 헛된 일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그가 가꾸고 있던 2,800본이나 되는 복숭아 나무가 추위에 얼어죽기도 하였고 실험은 매번 실패하군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장차 자연을 개조할 수 있는 훌륭한 일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수십년 동안의 꾸준한 실험을 통하여 사과, 배, 앵두, 복숭아, 포도 등 수많은 새로운 과수나무들을 키워 내였고 로씨야 남쪽의 과수 나무들도 북쪽의 추위에 견디여낼 수 있게 키워냄으로써 중부와 북쪽에서도 질 좋은 새 과실들을 딸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이름은 곧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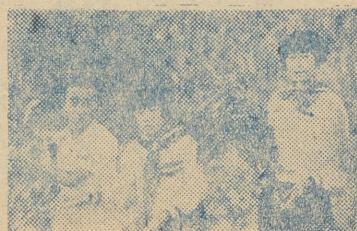
한 번은 미국 사람이 그를 찾아 와서 많은 돈을 줄테니 미국 땅에 가서 실험을 계속할 수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자기 조국을 사랑한 그는 미국 사람에게 성을 내며 《안 되오. 나는 절대로 조국 땅에서 떠날수 없소》하고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빛나는 사업은 그가 60세를 넘은 위대한 10월 혁명 후에야 비로소 활짝 앞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가 항상 품고 있던 위대한 꿈은 이리하여 쏘련 땅 우에 꽃 피였고 그의 업적은 위대한 쏘련의 자연을 개조하는데 이바지되였습니다.

우리들은 올봄에 모범 농민 아저씨들처럼 때를 놓치지 않고 제때에 파종하였고 6월과 7월 중순 두차례에 걸쳐 거름을 주었습니다. 옥수수는 첫 이삭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더 많은 비료를 주었고 그리고 네차례나 김을 매 주었지요.

우리들은 이 다수확 종자로 래년 봄에 또 훌륭히 실습지를 가꾸어 나가려고 합니다.

평남 양덕군 삼계 인민 학교 대
제1분단 박 창 자

우리들의 겨울 차비

우리 학교 대에서는 겨울 차비가 한창입니다.

지금 각 분단들에서는 솔방울 줏기가 시작되였고 나무 뿌리와 나무 껍질들도 장만합니다.

우리 분단에서만 해도 벌써 솔방울을 25가마니나 주었고 불살개로 할 백양나무 껍질을 6가마니나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들은 교실에서 공부할 때 발이 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솜과 짐승들의 털을 넣어 만든 덧버선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오면 우리들은 따뜻한 교실에서 계속 훌륭히 배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북 경흥 제1 인민 학교 대
제1 분단 위원장 양 만조

우리들은 도토리를 딴다

지금 우리 분단 동무들은 다같이 도토리 따기에 나섰습니다.

도토리는 병원에서 쓰는 알콜, 우리들이 먹는 된장, 기타 식료품과 가축의 사료로 되며 공업의 원료로 됩니다.

우리는 반별로 진행하는 조기회가 끝나면 신선한 맑은 공기를 마시며 도토리가 많은 마을 뒤'동산에서 하루 한되박은 문제 없이 딴답니다.

벌써 우리 분단에서는 46말의 도토리를 땄지요.

다음 일요일에는 분단에서 등산을 조직합니다. 그러면 또 많은 도토리를 따게 될 것입니다.

평남 승호군 제4 중학교 대 (인민반)
제10 분단 위원장 석 치호

즐거운 독서

우리 반 동무들은 복습을 끝마치면 즐거운 마음으로 반장 석 기주 동무네 집에 찾아 가군 합니다.

석 기주 동무네 집 웃방에 들어 서면 무엇보다 먼저 눈에 띄우는 것은 수십권의 책들이 곱게 정돈되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 동무들이 한 책, 두 책씩 정성껏 모아다 놓은 책들입니다.

저마다 새 책을 사거나 선물 받게 되면 자기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반장 동무네 집에 모아 놓군 하였습니다.

책들이 정돈되여 있는 곳에는 《책을 사랑하자》 라는 글이 곱게 붙어 있고 반 동무들이 읽은 책들의 이름을 적어둔 수첩도 있습니다.

이 수첩을 번지면 반 동무들이 어떤 책을 잘 읽었으며, 책 읽은 감상은 어떠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책을 읽겠는가도 적혀 있습니다.

우리 반에서는 책을 잘 읽으며 소중히 다루도록 하기 위하여 반 동무들에게 독서에서 세가지 규률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누구나 자기가 읽은 책은 새로 뚜껑을 깨끗이 만들며 더럽히지 말 것,

둘째로는 어떤 책이든지 날자를 정하고 그 정한 날자 안에 꼭 읽도록 하며 읽은 다음에는 읽은 책에 대한 감상을 반드시 쓸 것,

그 다음에는 읽은 책 속에 나오는 훌륭한 주인공의 모범을 본받으며 그 내용을 반 동무들 앞에서 이야기하여 줄 것 등입니다. 반 동무들은 이 규률을 잘 지킵니다.

그리하여 우리 반 동무들은 모두 책을 재미있게 읽어 나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읽고 싶은 책을 혼자 읽기도 하고, 한 동무가 책을 소리 내여 읽고 여러 동무들이 모여 앉아 조용히 듣기도 합니다. 혼자 읽는 것이 아니라 순번을 따라 차례로 읽어 나가며 듣습니다.

동요 동시를 암송하여 동무들 앞에서 랑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읽은 책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나누는 모임을 가지기도 합니다.

배 청호 동무는 여름 방학 때부터 지금까지 10여편의 소설을 읽었고 15편의 동시를 암송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분단 벽보에는 독서를 잘 하는 배 청호 동무의 모범이 소개되였습니다.

선생님과 분단 열성자들도 종종 우리 반에 찾아 와서 읽은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주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선생님이 느·노쏘브 작 《학교와 가정에서의 위쨔 말레예브》를 읽어 주시며 내용을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반의 리 춘파 리원삼 동무들은 공부를 미루지 않고 잘 해 나가는 훌륭한 소년단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동극 -《동무를 사랑하자》도 읽었고 《쾌활한 꼬마 가족》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설야 선생이 지으신 《만경대》와 《아동 혁명단》을 모든 동무들이 읽고 있습니다.

다 읽은 다음에 우리들은 독서 모임을 가지기로 되여 있습니다.

우리 반 동무들은 책을 열심히 읽게 되면서부터 공부를 더 잘 하게 되였습니다.

책은 우리들의 친한 벗입니다.

평양 제9 인민 학교 대 제16분단
최 영 길

최 복 선

(전호의 계속)

수복 영철아 여기 있었구나 야 굉장히 차렸구나, 또 정찰 놀음이냐.

영철 정찰 놀음 여간 재미있지 않아. 난 이다음에 커서 꼭 정찰 영웅이 된다. 김 봉호 정찰 영웅.

수복 그래 그러니까 영웅이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놀기만 하면 어떻거니?

영철 영웅 연군 공부가 아닌가?

수복 네가 하는 것은 연구가 아니고 놀음이야.

영철 안야. 내가 하는 것이 연구야.

수복 또 고집이냐? 영철아! 그런데 넌 왜 요사이 공부를 통 안하니?

(말이 없이 잠시 사이)

너 그러다간 영웅 연구 모임에서도 쫓겨난다.

영철 쫓겨나? 공부하고 영웅 연구하고 무슨 상관 있냐?

수복 영웅들은 어린 때 모두 공부를 열심히 했단다.

영철 분단 위원장이라구 너무 뽐내지 말어. (달려 나간다)

수복 영철아! 영철아!

(영철이가 나간 쪽을 바라 본다。수복이 생각에 잠겨 있다)

—소년들이 웅성대는 소리가 멀리서 들린다—

아이들이 들어 온다.

성자 분단 위원장 여기 있었구나, 명희는 너를 불러 온다고 교실에 갔는데.

민자 수복이 너 왜 기운이 없니?

수복 안야. 다들 모였니?

광모 영철이 하구 희숙이가 없다야!

성자 어디. 영남이도 없는데.

민자 락제생은 영웅 연구할 자격 없지!

금자 그래 네 말이 옳아.

수복 그것은 있다 영철이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오늘은 계획대로 영웅 연구 모임을 하기로 하자.

일동 그래.

노래 (분단 모임의 노래를 북에 맞추어 부른다)

수복 오늘은 박 원진 영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되여 있지.

성자 그럼 내가 이야기할게. 박 원진 영웅은 평북 구성군에서 나셨는데 열 여섯살에 인민 군대에 나갔어. 자기 나이를 두살 올려서 열 여덟살이라고 속이고…

영종 야! 멋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인민 군대가 될 수 있지.

경자 나이 열 두살에 무슨 인민 군대가 될 수 있니.

영종 열 여섯살이라고 속이고 소년단 휘장을 떼면 되지 뭐.

일동 (기뻐하며 웃는다)

성자 그리고 박 원진 영웅은 전호 속에서도 소년단 행진곡만 불렀대. 얼마나 소년단 생활이 그리워서 그랬겠니.

금자 박 원진 영웅은 학교 다닐 때 항상 최우등생이였대.

성자 그런데 영철인 영웅이 되겠다면서 락제 점수가 있지 않니.

수복 자.그럼. 오늘 모임은 이상 끝마치기로 하자.

모두 그래.

희숙 분단 위원장 (부르며 뛰여 온다)

일동 (그를 향하여 본다)

희숙 너희들 여기 있었구나.

금자 너 왜 늦었니?

희숙 집에 좀 갔다 오느라고 늦었어.
그런데 분단 위원장, 선생님이 찾아.

수복 날? 왜 그러실가?
그럼 내가 빨리 뛰여 갔다 올게 (나간다)

순희 우리 분단 위원장이 올 때까지 써클 연습할가?

모두 그래 (희숙이만 보고 서 있고 다들 춤춘다)

문자 희숙이는 왜 같이 춤추지 않니?

희숙 이런데서 이렇게 고운 옷을 입고 춤추니?

민자 그만 둬. 우리끼리 추자.

일동 그래. (춤춘다) (춤이 끝나자)

희숙 하하……(웃는다)
내 입내만 내고들 있어. 그게 무슨 춤이냐.

성숙 그럼. 어디 네가 한번 추어 봐!

희숙 그럼 노래 불러 주어야 한다.
(춤추기 시작)

민자 (노래 부르기 시작하자) 쉬——
(동무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막는다. 노래가 멎자)

희숙 그만 두렴. 나 혼자 노래하면서 추지. (춤 춘다)

일동 (아니꼽게 보며 서 있다)

순희 그것 봐. 혼자 추니까 무슨 재미가 있니?

희숙 (곧 응하지 않는다)

일동 (어서 같이 추자고 권한다.)

순희 자 시작(같이 춤 춘다. 영종 벽보판을 들여다 보고 서 있다)

영종 야 사진 없어졌다야.

일동 얜 우리들 춤 추는데 귀찮게.

영종 빨리 와 봐. 김 봉호 영웅 사진 없어진 것.

일동 (놀래며) 누가 뜯었을가?

민자 붙잡기만 하면 용서할 수 없어.

순희 영철이가 뜯었을가?

성숙 하여튼 우리 분단에 나쁜 장난'군이 있긴 꼭 있어. 꽃도 꺾었지. 사진도 없어졌지.

(이때 명희가 영남의 손을 끌고 들어 온다).

영남 놔. 아 놓라니까.

명희 애들아. 우리 반에 나쁜 애들이 생겼어.

희숙 어디?

명희 이것 네꺼지?

희숙 (반색하며) 내꺼야. 내꺼 아이 찾았네.

영남 아니야. 우리는 정찰 놀음을 하느라고 그랬어.

명희 정찰 놀음은 무슨 정찰 놀음이냐?

영종 명희야 자세히 얘기 좀 해 봐.

영남 안야 우리는……(명희의 말을 가로 막으며)

명희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수복이를 찾으러 교실에 들어 가니까 영남이가 희숙이 책상 있는데서 깜짝 놀라며 무엇을 떨어뜨리겠지. 무어냐고 물으니까 우물쭈물 하드구나. 가 보니까 이 빨간 만년필이 아니냐.

금자 야 저기 영철이가 온다.

경자 영철이가?

영종 영철아. 네가 희숙의 만년필 훔쳤지.

영철 (당황하며) 만년필? 그건 훔친 것이 안야. 정찰 놀음하느라고 몰래 뺏다 도루 넣으려고 하든거지.

명희 넌 나쁜 애야.

영철 무엇이? 내가 나쁜 애라구?

성자 영웅 사진도 네가 뜯었지?

영철 (우물쭈물한다) 우린 정찰병이니까!

문자 소년단원이지 정찰병이냐

민자 틀림 없이 사진도 영철이가 뜯었어.

경자 너 꽃밭의 빨간 꽃도 뜯었지.

영철 빨간 꽃?

금자 저런 애들은 내버려 둘 수 없어.

광모 저런 애가 있으니까, 우

린 만경대에도 못가지.

영종 영남아. 넌 산수 시험에 2점이구. 어느 때구 장난'군이야.

영남 안야. 만년필도 사진도 영철이가 뜯고, 나는 만년필을 도루 갔다 둘려고 그랬어.

영철 뭐! 내가 시켜서 했어? 내가 훔쳤다구? 언제 우리가 그러자고 했니?

명희 영철이를 우리 영웅 연구 모임에 참가시키지 말자.

일동 그래.

(영철이 분을 못이겨 운다)

금자 그 애가 영웅이 돼?

(이때 수복이 좋아서 헐덕이며 "애들아!" 하며 뛰여 온다)

명희 분단 위원장, 영철이하구 영남이가 모다 훔쳤어, 만년필, 사진, 그리고 꽃도.

수복 넌 정말 장난꾸러기가 됐구나.

정찰병 놀음이라고는 하지만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놀음이 어디 있니?

명희 분단 위원장 가자! 빨리 가서 소년단 지도원 선생님께도 말씀하고, 대 위원회에도 제기하자.

모두 그래.

수복 애들아, 영철이는 장난'군이야. 남의것 훔칠 애는 아니야. 영철이는 우리 분단 동문데 내쫓자고 하면 어떻게 하니?

명희 수복이 네가 자꾸 그러니까, 영철이가 점점 더 나빠지지 뭐냐?

수복 안야 반드시 고쳐질거야。

민자 영철이가 그래도 고집하구 공부 안할 때에는 분단 위원장이 책임 질테냐?

수복 그래, 내가 책임질게.

명희 (더 할 말이 없다는 듯이 서서 보고 있다)

수복 영철아. 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집만 부리니?

영철 수복아. 사진 도루 줄테야.

모두 뭐. 저 사진 가진 것 좀 봐.

(놀래여 웅성댄다)

수복 영철아. 이 사진 너에게 줄게 가져. 김 봉호 영웅은 공부에서도 영웅이였단다. 그러니까, 영철이도 김 봉호 영웅처럼 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공부해, 응.

영철 수복아, 네가 나를 위해

애쓰는 것을 나는 몰랐어. 나는 내 고집만 부렸어.

일동 (의아해서 보고 있다)

수복 영철아, 깨달았니?

영철 응!

수복 그럼 동무들에게 네 잘못을 얘기해 봐.

영철 애들아, 난 공부도 안하고 모임에도 참가하지 않고 작난만 했어. 앞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할테야.

일동 야아 좋다.

명희 영철아, 나도 잘못했어. 분단 위원장처럼 너를 고쳐 주기 위해 애쓰지 않고 나는 너를 미워만 했어, 안됐다.

영철 안야. 다 내가 나쁘니까 그랬지 뭐. 그런데 꽃밭의 꽃은 내가 꺾지 않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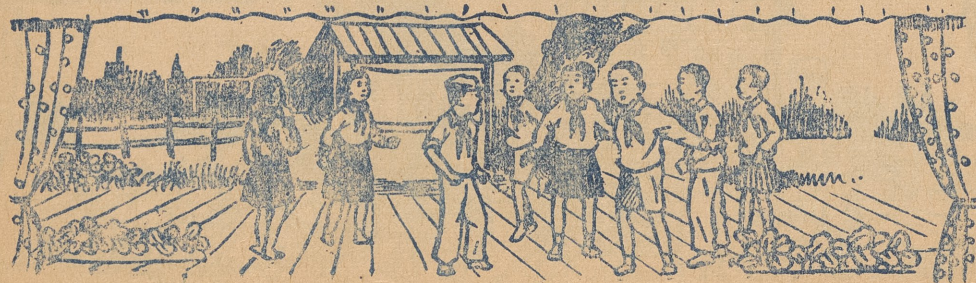
영남 나도 안꺾었는데.

모두 그럼 누가 그랬니?꼭 우리 분단 동무가 그랬지 뭐.

수복 누군지 자기 잘못을 애기하구 영철이처럼 좋은 애가 되여라.

희숙 꽃밭의 꽃은 내가 꺾었어.

모두 (놀랜다) 뭐 희숙이가.

희숙 나도 앞으로 너희들과 같이 놀구 꽃밭도 같이 가꿀테야.

수복 됐어. 우리 동무들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였다는 것을 벽보에 내기로 하자.

모두 (좋아한다)

수복 애들아. 깜박 잊었댔구나.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우릴 만경대 견학을 데리고 간대.

모두 뭐? 그게 정말이냐?

수복 선생님께서 래일, 모래 떠난다구 동무들에게 전하라구 말씀하셨단다.

모두 야 좋다.

(어쩔 줄 모르고 좋아 날뛴다)

명희 난 만경대의 아름다운 경치를 그림으로 그려 올테다.

순희 난 수령님이 어리실때 자라신 만경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동요로 지을테야.

성숙 난 수령님의 할아버지를 만나 뵙고 수령님의 어리실 때 얘기를 들겠다.

광모 나도.

영종 난 만경대 학원 형님들과 춤을 출테야.

영철 나도 만경대에 갈 수 있니?

명희 우리 영철이하고 영남이도 데리고 가자.

영철 산수 시험에 2점인데두.

수복 그래 갔다 와서 공부를 잘 해서 5점 받으면 되지 뭐.

영철 야, 좋다.
난 만경대에 가서 수령님이 잘 오르셨다는 나무에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대동강을 바라볼테야.

영남 나도.

순희 대동강 물이 흐르고 다박솔 우거진 만경대에 빨리 가보고 싶지!

—대동강의 노래—

모란봉 청류벽을 굽이 돌아서
대동강 맑은 물은 어디로 가나

(멀리 바라보며 노래)

명희 저기 붉은 노을이 참 아름답지?

순희 만경대의 붉은 노을은 더 아름다울거야.

—노래 계속—

원수님 탄생하신 만경대를 지나서
자랑을 가득 싣고 바다로 가지— (막)

동 요

꼬마 공장

황해남도 장연군 명천 인민 학교

리 종 곤

철수는 삽을 메고
나는 마치를 들고
앞내'가로 나아가
꼬마공장 만들었네.

꼬마 벽돌 쌓고
꼬마 기계 놓으니
아빠 엄마 다니는
공장 같지요.

철수는 선방공,
나는 수리공,
꼬마공장 놀이
참 재미있죠.

아이들아 꼬마 공장
구경하여라.
철수는 모범 로동자
나는 모범 기사
우리들의 꼬마 공장
잘도 돌지요.

여러가지 말

김 정 봉

《애, 숙자야! 이걸 먹으면서 잘 놀아라, 내 잠간 거리에 다녀 올게》.

옷을 갈아 입고 어머니는 찬장 속에 두었던 사과를 꺼내다가 숙자에게 두 알 주고 오빠 영길에게 한 알을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거리에 혼자 나간다고 뾰루퉁해졌던 숙자의 얼굴은 그제서야 동골동골해지며 고개를 앞뒤로 끄덕였습니다.

《영길이도 일요일이라고 놀기만 하면 안돼요! 숙자와 그림책도 보며 공부도 해야지》.

그러나 영길이는 문턱에 걸쳐앉은채 못마땅하다는 듯이 하나밖에 못받은 사과 알만 들여다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발자국 소리가 담밖으로 사라지자 영길이는 곧 사과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숙자를 어떻게 골려 넘기고 사과를 빼앗아 먹을가?)

영길이는 머리 속에 신통한 생각이 떠 오르지 않아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숙자의 눈치만 힐끔힐끔 보았습니다.

책상 우에는 꽃병이 놓여 있는데 숙자는 그 꽃을 뽑아서 인형의 두 손에 쥐여 주며 놀음'감이 들어 있는 바구니에서 붉은 천 조각을 꺼내고 있습니다. 인형 앞에는 두개의 사과 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영길이는 불쑥 일어나 숙자의 바구니를 빼앗아 들고

범아 범아 숙자 범아,
날 잡으면 주지,
요것두 못잡아,
날 잡으면 주지…

하고 숙자를 놀려 대며 문 밖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랜 소리를 지르며 숙자는 영길이를 쫓아 나갔습니다.

얼마 동안 놀려 주던 영길이는 갑자기 집 뒤로 달음박질해 돌아 갔습니다.

숙자가 울'상이 되여 뒤쫓아 갔을 때 벌써 영길이는 어디론지 숨어버리고 우물 결에 서 있는 수양버들 가지에 대롱대롱 걸려 있는 바구니만 보였습니다.

그 사이에 영길이는 부엌문으로 빠져 안방 문을 슬그먼히 열고 들어섰습니다.

《흥 흥, 요 끄맹이가 내 꾀에 넘어 갔거든》하고 그는 책상 우에 놓여 있는 사과를 덥석 쥐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뜰 안으로 나와 담밖으로 뛰여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니 어머님이 돌아 오시는 것이였습니다.

영길이는 멈칫 그 자리에 서며 사과를 든 두 손을 재빠르게 뒤로 감추었습니다.

《……》

《영길아, 숙자랑 잘 놀았니? 그리고 누가 오지나 않았댔니?》

영길이는 고개만 옆으로 흔들며 어머님의 눈치만 힐끔힐끔 쳐다 봅니다.

《어딜 갈라댔니?》

《어머니가 돌아 올 때가 돼서… 마중 갈가 하고…》

영길이는 아주 그럴듯 하게 꾸며 댔습니다.

《영길이가 오늘은 용한데! 어머니의 말을 잘 듣구, 그럼 내 좋은 것을 주지》.

이때 숙자가 뛰여 들어 어머니의 손에 매달리며

《엄마, 오빠한텐 아무 것도 주지 말아!》하고 영길이를 쏘

아 봅니다.

《오빠가 숙자를 놀려 주던?》

《그럼 뭐 내 바구니를 버드나무 가지에다 걸어 두고 도망쳤는 걸 뭐》.

《네가 그걸 어떻게 내리웠니?》.

《버들가지에 매달리여 흔들

었지 뭐》하며 바구니를 앞뒤로 내 흔들었습니다.

《우리 숙자는 참 똑똑하거든, 내 숙자를 주려고 과자를 사왔지》.

어머니에게서 과자 봉지를 받아 든 숙자는 다팔다팔 방 안으로 들어 갔습니다.

《영길이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지. 자 받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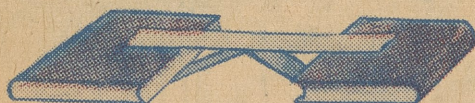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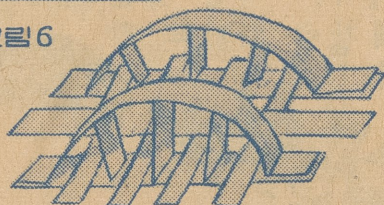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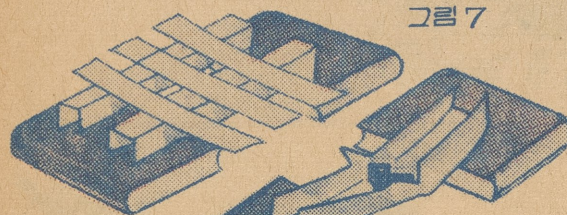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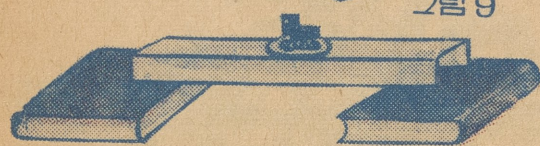
어머니는 웃는 낯으로 그림책 하나와 과자 봉지를 영길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영길이는 뒤로 감춘 두 손을 옷춤에 넣은채 오무작거리기만 하며 닭알춤만 삼킬 뿐이였습니다.

중국우화 다람쥐

다람쥐에게는 다섯 가지 재간이 있답니다. 날 줄 알고, 걸을 줄 알고, 헤염칠 줄 알고, 나무에 기여 오를 줄 알며 또한 땅에 구멍을 뚫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재간을 배웠지만 한 가지도 잘 배운 것은 없답니다. 날 줄 알지만 높이 날지 못하며 헤염칠 줄 알아도 멀리 헤여 가지 못하며 나무에 기여 오르는 것도 웃초리까지 올라 가지 못하며 걷는 것도 그리 빠르지 못하고 땅에 구멍을 파는 것도 그다지 깊게 파지 못합니다.

말로는 다섯가지 재간을 배웠다고 하지만 쓰는데는 한 가지도 쓸 모가 없답니다. 이런 것을 어찌 그에게 재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리 건느기

어린이 여러 동무들! 마분지로 사람, 말, 자동차, 뜨락또르 등 장난'감을 만들어 그림처럼 둥그런 합판 또는 양철 판에 붙이십시요.

그러면 길을 떠납시다. 길을 가노라면 강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다리가 없으니 곧 다리를 놓아야지요.

사람들과 말들은 물론 헤염쳐 건너 갈 수 있으나 자동차, 뜨락또르 등은 건너 갈 수 없습니다.

다리는 화용지 (또는 못쓸 엽서)를 좁게 오려 만듭시다. 량 기슭은 책을 놓으면 됩니다.

먼저 한장을 가로 놓아 보세요. 아직 사람이 건느기에도 위험합니다 (그림 2).

그럼 두겹 세겹으로 하면 견디여 낼가요? 지험해 봅시다. 사람과 말은 이럭저럭 건널 수 있으나 뜨락또르는 어림도 없지요 (그림 3).

이번엔 다리 밑에 한장 받치여 봅시다 (그림 4).

그림 5처럼 받치면 더욱 튼튼할 것입니다. 보십시요. 사람도 자동차도 건널 수 있지 않아요.

그림 6 또는 7과 같이 만들어도 됩니다.

참 멋진 다리들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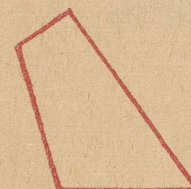
다음엔 그림 8과 같이 화용지를 ㄷ형으로 접어서 밑을 받친 다음 그 우에 다리를 놓아 보세요. 무엇이든지 건널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 보십시요. ㄷ형의 마분지를 하나만 건너 놓으니 훨씬 튼튼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림 9)

어린이 여러 동무들! 여러분은 여러 가지 다리들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밖에도 아직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만들 수 있지요.

자 진짜 다리들을 직접 찾아가 보세요. 그 다리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가요?

여러분도 그러한 튼튼한 다리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 보십시요.

쉽게 그림 그리는 법

피라미트

아래의 그림과 같은 피라미트를 만들어 봅시다. 이 피라미트는 50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소년 38명 소녀 12명) 그 중 12명의 소녀는 화원을 들고 21명의 소년은 기'발을 드십시요.

피라미트를 만들기 전에 먼저 이 피라미트를 만들어 나갈 자리에 금을 긋고 그 중심이 될 곳에 직경 80cm의 둥근 판대기를 놓으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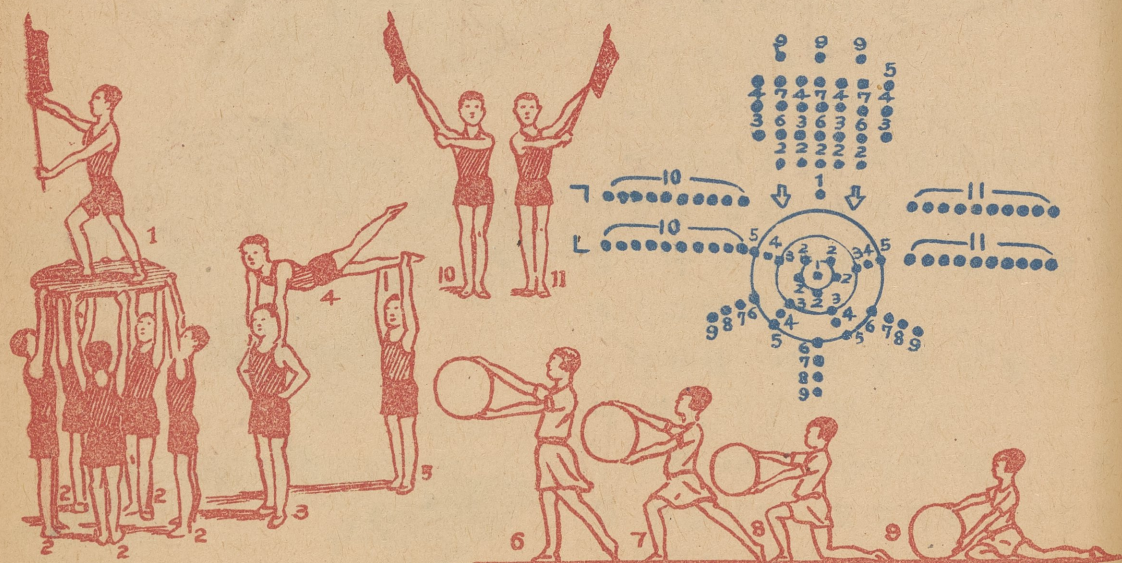
참가자들은 처음에 그림 ㄱ처럼 렬을 지어 서십시요 (매 간격 (사이) 은 2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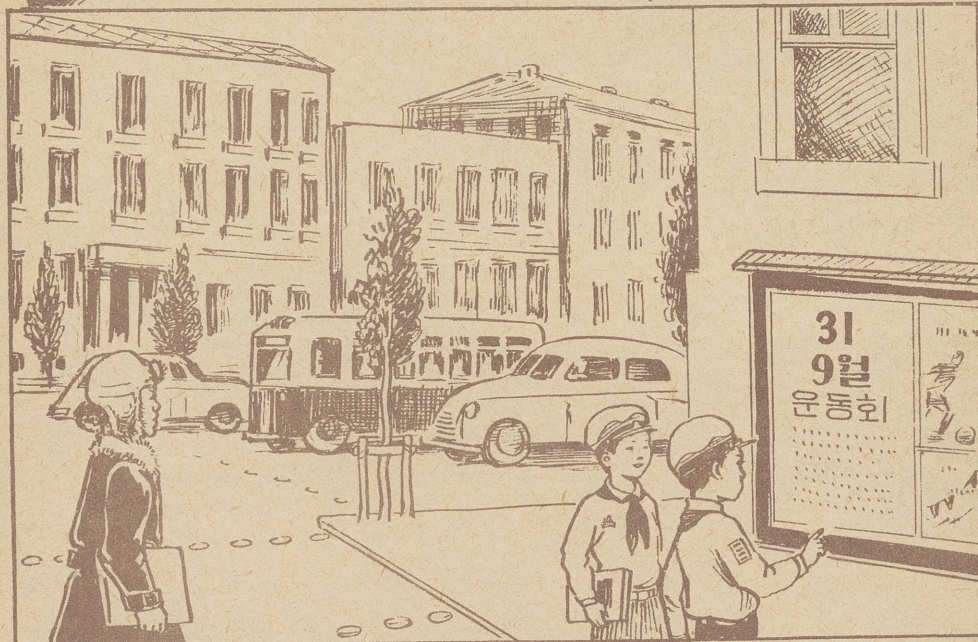
1,10,11 번들은 각각 기'발을 두 손으로 가슴 앞에 들고 6,7,8,9번들은 화원을 오른 손에 쥐고 내려 드리우면 됩니다. 행진곡에 맞추어 그림과 같이 ㄴ 위치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의 구령에 따라 1번은 판대기 우에 서고 2번들은 앉아서 판대기를 잡고 4번들은 앉아서 3번들의 어깨 우에 손을 얹고 6 7, 8, 9 번들은 화원을 앞으로 내밀며 10, 11번들은 각각 오른 쪽과 왼쪽 우로 기'발을 드십시요.

구령 《둘》에 따라 2번들은 판대기를 들고 일어서며 4번들은 뒤로 오른 발을 쳐들고 6, 7, 8, 9번은 화원을 우로 추켜들며 무릎을 굽히기 시작하시요.

구령 《셋》에 따라 그림과 같은 모양을 완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구령 넷 다섯에 의하여 피라미트를 풀고 행진곡에 맞추어 제자리로 가면 됩니다.

잘못된 그림

아래의 그림에는 여섯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무엇을 잘못 그렸습니까?

제8호 현상 문제 해답 및 당선자 발표

답 1. 압록강, 신의주
2. 두만강
3. 대동강, 청천강, 평양, 안주
4. 성천강, 룡흥강, 함흥, 원산

당선자

함북도 온성군 풍서 인민 학교 한 성철
함북도 영안군 신양 인민 학교 김 송수
함남도 요덕군 룡평 인민 학교 김 두섭
함남도 신상군 관평 인민 학교 리 병덕
평남도 개천군 개천 인민 학교 림 영식
평남도 증산군 가장 인민 학교 박 영자
평북도 동창군 학송 인민 학교 강 을성
평북도 곽산군 장룡 인민 학교 리 주영
황남도 송화군 관양 인민 학교 김 봉식
황남도 은률군 은률 인민 학교 김 시덕
황남도 수안군 옥치 인민 학교 장 영주
황북도 연산군
연산 제1 중학교 (인민반) 김 달성
자강도 화평군 소북 인민 학교 박 금옥
자강도 룡림군 천산 인민 학교 장 봉룡
강원도 창도군 송거 인민 학교 김 옥년
강원도 철원군 철원 인민 학교 박 춘식
량강도 갑산군
제3 중학교 (인민반) 조 경일
량강도 혜산시 제1 인민 학교 김 호영
개성지구 개풍군 신서 인민 학교 하 영순
평양시 사범 부속 인민 학교 손 병환

편집 위원——김 주 현 (주필) 김 창 호 원 홍 구 리 순 권 강 효 순 리 배 형 림 홍 운

1955년 10월 5일 인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1955년 10월 10일 발행 《소년단》 1955년 제10호 (총73호)
발행소 민주 청년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30176 값 25 원 52,000부 발행

몸을 튼튼하게!